

대한전선, 사우디에 초고압 케이블 공급

대한전선(대표 손관호·강희전)은 사우디에서 4300만달러 상당의 초고압케이블 공급 공사를 수주했다고 1월 21일 발표했다.

사우디 동부 전력청(SEC-EOA)이 발주한 프로젝트는 도하(Doha)의 기존 변전소와 새로운 변전소 사이를 잇는 초고압 지중케이블 송전선로 공사이다.

대한전선은 공사에서 380kV급 초고압케이블 73km와 자재를 납품하고 시공할 예정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중동지역 국가가 최근 송전효율을 높이려고 전력설비를 교체하거나 고용량의 지중 전력망 구축에 나서고 있어 수익성이 높은 380kV 이상 초고압케이블 발주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1/21>